

大學 教育課程의 運營에 대한 學生의 要求 分析

— 濟州大學校를 대상으로

李 淳 珩*

目 次

- I. 調查의 目的 및 方法
- II. 調查 結果
 - 1. 教科目的 設定과 開設
 - 2. 教科目的 擔當教授
 - 3. 教科 授業
 - 4. 授業 結果 및 學生成績의 評價
- III. 結 論

I. 調查의 目的 및 方法

한국의 대학은 그동안 놀랄만한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해방 당시 1개의 대학, 18개의 전문대학에서 1989년 현재, 4년제 대학이 115, 전문대학이 117에 이르러, 모두 230여 대학에 학생수만 해도 130여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제는 누구도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리만큼 국민 모두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많은 문제를 수반하여 오늘날 한국의 대학교육은 전환기에 처해 있다¹⁾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왔다. 그 동안 제도적 수준에서도 여러가지 개혁사업이 진전되어 왔음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양적발전에 따른 질적 관리의 문제는 고등교육의 과정이나 내용, 그리고 전공간의 합리적 조정, 학사관리와 졸업제도의 재검증,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문제 등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다.²⁾ 이와 관련하여 1970년대에 이미 교육부는 60년대 행정감사위주 평가에서 실험대학 평가제의 도입을 통해 대학개혁을 주요정책으로 삼아 추진한 바 있으며, 한편 대학평가 사업에도 관심을 모아 1982년 부터는 대학교육협의회를 조직, 대학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대학평가인정제도(accreditation system)를 정착시킬 전망이다.

* 학생생활연구소장(교육대학원교수, 교육학)

1) 李星鎬外, 韓國大學評價의 制度的 發展을 위한 研究,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7, p. 16.
2) 李鉉清, “大學의 最近 發展과 質的 統制”, 大學教育, 韓國大學教育協議會, 42호, 1989, pp. 20~26.

이러한 인정제는 설정된 질적 기준에 학교가 이미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며³⁾ 우선 자체 평가를 통해 그리고 전문가의 계속적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대학의 개선과 발전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다.⁴⁾

현재 실시중인 대학평가는 대학인정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 점에서 대학 자체평가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대학평가사업은 여러 대학에 계속 확대 실시되어 왔으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각 대학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설비 및 교육자료, 행·재정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실태확인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별 대학의 자율적 발전의 노력을 자극,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려는 데 주요 목적을 두어 왔다. 현재 평가대상 대학의 구체적 선정 및 그 평가의 시행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를 주관, 매년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본 대학도 1990년도 평가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작년 4월에 그 평가가 이루어져 그 결과가 이미 보고서로 제출되었다.⁵⁾

본 연구는 이 계획에 의한 자체평가 연구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연구자가 「교육과정」 부문의 연구를 맡아 수행하게 된 것이 그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우선 평가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1990년 1월중에 질문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앞서 달한 바와같이 동협회의 현지 방문평가시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되어 평가를 받았다.

여기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질문서 내용 가운데 학생들의 주관적으로 기술하게 되어있는 자유반응 문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필요를 보다 심층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교육과정의 평가에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과 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은 수업의 과정에 직접 투입되어 이를 수행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교과목의 적절성이나 질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논평이나 비판은 교육과정 개선의 중요한 원천을 제공하게 된다.⁶⁾ 학생들에 의한 강의의 평가가 얼마나 신뢰로운 것이며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평정방법에 따라 다른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학생들의 평정이 상당히 신뢰로운 것으로 밝혀져 있다.⁷⁾ 따라서 본 연구는 동 보고서의 평가문항 외에 교육과정운영과 관련된 학생들의 주관적 기술을 집중 분석한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3) 朱三煥外, 大學評價認定制의 制度化 方案 研究,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9, pp.12~13.

4) Anderson, Kay J., et al., Handbook of Accreditation: Accrediting Commission for senior colleges and Universities,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1982, p.1.

5) 濟州大學校 自體評價委員會, 1990年度 濟州大學校 自體評價 研究報告書(機關評價用)

6) Paul L. Dressel, Handbook of Academic Evaluation,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1976, p.313~316.

7) 李星珍外, 大學授業評價方案에 관한 研究, 大學授業評價方案研究委員會, 1982, p.25.

원래 질문지는 교수, 학생의 두집단을 대상으로 별개로 마련된 것이지만, 상대적인 면에서 각 평가분항에 대한 의견이나 요구를 대비·조사하고자 했으며 평가분항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시된 평가 준거를 기초로 하여 제작되었다. 반응결과는 다양하나 관련된 견해들을 통합·유형화하여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 이상에서 견해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는 다소 부리가 있을 것으로 보아 이 수준에서 처리되었다.

교육과정 부문에 대한 평가는 대학목적의 교육과정의 반영도, 교육과정의 편제와 구조, 수업의 계획 및 실천, 그 결과의 성취와 관련된 영역에서 다시 이를 세부분항으로 나누어 조사(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여기서는 크게 교과목의 개설, 수업의 계획과 지도 및 평가, 학위이수의 영역으로 포괄하여 그들의 의견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II. 調查 結果

본 대학의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 및 요구는 대학 및 교수들의 교육과정 편제와 운영에 대한 실재를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구의 분석과 그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 편제, 운영에 대한 실재와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의견 및 요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교육협의회 평가(교수)진의 전반적인 평가사항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반적으로 본대학의 교육과정의 운영은 대학교육목적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 못지 않게 타 대학의 그것과 다른, 제주대학의 설립목적 및 각 대학, 학과의 특성을 더욱 살릴 수 있도록, 그 특수성을 추구해야 한다. 앞으로 교육과정의 편제 및 운영의 개선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은 그 편제 면에서 전공기초과목이 지나치게 과대 설정되어 있다. 계열별 교양 필수과목 및 계열선택과목이 재조정되어 균형있게 편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③ 전공과정의 편제와 운영의 면에서 지나치게 전공 위주, 학과간 교과편제의 불균형이 심하다. 필수보다 선택과목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그리고 타학과의 교과목에 대한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 학과가 많아 대학, 학과간에 폐쇄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요구된다.

④ 시간표의 편제에서 보면, 이는 교수위주 또는 교수 편의 중심, 선택과목 시간의 중복, 단과대학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의 교과이수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⑤ 과제물의 처리가 미흡하며 이와 관련된 평가의 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⑥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제에서 교육학 과목이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 이를

3학점 내지 6학점 이상 상향시키도록 그 시정이 요구된다.

⑦ 대학원은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학문별, 계열별로 분리되어 있어 교과목간 불균형이 심하다. 이를 보다 통합, 균형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견해를 분석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하겠다.

1. 教科目的 設定과 開設

대학의 교육과정은 흔히 교양, 전공, 선택의 세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⁸⁾ 지도자로서의 자유로운 지성과 국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교양과목, 직업적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 개인의 흥미와 폭넓은 감수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한 자유선택교육의 그것으로 이 세가지 교과영역에서 대학은 조화로운 지도자가 길러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들 교과기능은 영역별 목적(domain objectives)을 지니면서 동시에 다양한 기능적 목적(multiple objectives)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⁹⁾ 그것은 대학의 목적인 교양교육(liberal education)과 전문교육(professional education)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시 통합되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교과목의 설정과 개설이 이 세가지 카테고리에 의해 분류, 편성되고 있음은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동 협회회의 평가기준도 이를 토대로 설정되어 있다. 즉, 기초교양과 전공교육에 필요한 과목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대학기 적절하게 개설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다.

본국의 교과목 설정도 크게 세분야로 나누어 그 틀을 이루고 있다. 지도자의 기본적 품격의 형성 및 모든 학문의 바탕이 되는 기초학문으로서의 교양과목과 직업적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과목, 그리고 다양한 관심과 사회적 감수성을 기르는 데 유의한 일반선택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일반선택과목은 다시 부전공과목, 교직과목(비사범계), 자유선택의 세분야로 나뉘어져 각기 전공분야의 특성에 따라 달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수학점의 기준은 140학점 이상이 보편적이나, 법학과 및 공학계열이 150학점, 수의학과는 160학점으로 보다 높다. 구체적으로 학점의 이수는 각 대학, 학과별에 따라 교양, 전공, 일반선택의 세 영역을 달리 이수해야 하며 교양과정이 전체 학점의 30%수준(교육법 시행령 119조)인 42학점 이상을 유지하되 실습, 실습, 교직과정등 특별히 정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3학점 단위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기본 골격이다.

8) Daniel. Tanner and Laurel N. Tanner, Curriculum Development : Theory into Practice,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80, p.469.

9) John Haywood, Assessment in Higher Education, Chichester : John Wiley & Sons, 1989, p. 18.

1) 教養科目

교양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된다. 140학점을 기준으로 할 때, 교양필수는 20~24 학점까지, 교양선택은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과학의 네 분야중에서 적어도 각기 1학점 이상을 선택하여 과목간 균형을 이루어 이수토록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대학 또는 학과에서는 균형성의 유지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었다. 즉, 계열별 교양선택의 이수를 자기계열의 교양필수과목에서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에서 12~15학점을, 그리고 나머지 3학점(1과목)만을 타계열에서 선택할 수 있게 개설함으로써, 타계열 학문 분야에서 겨우 1과목만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그 균형을 무시한 편제라 할 수 있다. 인문·사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의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연계 학과는 나머지 세 영역중 두 영역에서만, 그것도 1과목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일부 대학 또는 학과에서는 네 분야 학문 가운데서 어느 한분야의 1과목만을 개설하고 있다던가 더우기 예체능과목은 아예 개설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양선택 역시 대부분 자기계열과목으로만 지정하여 결과적으로 선택의 여지는 1과목 아니면 2과목에 불과하다. 사실상 선택과목의 여지를 별로 허용해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교양과목의 설정과 개설에서 학생들은 30% 이상이 불만을 보였음은 이와 관련이 깊다. 교과목의 설정과 개설에서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었음이 이를 말해준다. 개설된 교과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과중심 형태이며 거의 1학년에서만 이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앞으로 대학이 갈수록 세분되는 모든 하위학문을 그대로 교과화시킬 수는 없음을 감안한다면 나아가 학문간 또는 다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에 비추어서도 이는 통합형 교과 또는 주제 중심의 코스가 보다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교양과목의 취지 또는 선택과정의 의미와 그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기 그 폭을 넓혀 주어 실질적으로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교양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교양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구분	만족도	아주불만	불만	보통	만족	계
빈도		28	94	104	24	252
%		11.2	37.6	41.6	9.6	100
누계		11.2	48.8	90.4	100	100

위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이들 불만족해 하는 학생들은 교양과목의 운영에 선택의 폭이 전혀 주어지지 않거나 또는 별로 없고 게다가 시간표마저 중복되는 등(33.9%) 교양과목의 선택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함을 말해주었다.

강의의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불만이 적지 않았다. 고등학교과정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고

있다든지 교재 일변도의 강의라든가 아니던 교재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다든지 하여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나아가 좀더 시대상에 유의하여 현실의 문제를 적절히 반영해주어야 한다거나 새로운 교과목의 개설, 깊이와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과목의 설정, 언어교과인 경우 보다 실용성을 살려주었으면 하는 데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교양과목의 편성과 운영은 일반적으로 교양과목이 학문중심적 개론과목으로 개설되고 그 운영이나 수준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교과목과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공계 및 전문직 양성의 학과에서는 계열기초 또는 전공기초라는 명목으로 3~12학점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¹⁰⁾

S대학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우리 대학과는 달리, 학문 영역의 분류방식을 우리와 같은 종전의 4개 분야에서 8개교과 분야로 세분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보다 확대시켜 주고 있다. 즉 학문영역을 국어와 작문, 외국어와 외국문화,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와 이념, 자연의 이해, 기초과학, 체육 및 기타로 넓혀 새로이 통합했는가 하면, 이수시기도 종전의 1학년에서 대부분 이수하던 것을 1~3학년 사이에 나누어 이수하도록 했고, 그 대신 1학년 1, 2학기에 전공과목을 각기 6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공에 대한 욕구도 미리부터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충족시킨다는 방침을 내세워 「식량과 인류」, 「명상과 자아」, 「제3세계 문학」등의 주제중심 또는 통합형 교과 형태를 지향하면서 아울러 「캠핑」이나 「볼룸댄스」등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과목들도 신설하여 교과편제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우리 대학의 교양과정의 편제와 개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교수들의 교양과목의 성격에 대한 인식의 부족 내지는 그 개설에서의 갈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교양과목의 학점단위를 낮추어 보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거나 교양과목의 영역을 보다 세분하고 필수를 가능한 최소화, 전학년에 걸쳐 이수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개선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¹¹⁾

비단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양과목의 목적과 필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교육과정의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¹²⁾ 대중화상태에서의 고등교육에서는 전문직업의 교육이 자유학문의 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더 확대 될 수 밖에 없다.¹³⁾ 자유교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전혀 기초 준비인가? 혹은 인간성 육성이 관심인가, 아니면 학문성의 지향인가? 교양과목의 성격을 이렇게 이원화하여 이해할 때, 우리 대학의 위상은 후자 즉, 교수들이 지나치게 학문성만을 지향한 전공기초적 성격의 과목의 확보에 치중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자유교양의 교육이 전문직업분야의 확대에 의하여 위축되거나 경시되는 일은 교육 본질을 위해해야 하는 것으로 교양교육이 위기의 현상에 처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10) 朴東緒外, 1988年度 大學機關評價 綜合報告書,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8, pp. 59~60.

11) 朴榮根, “教養教育의 問題點과 改善策”, “大學教育”, 40호, 1989, 韓國大學教育協議會, pp. 78~87.

12) 李星鎬外, 大學教養教育課程의 編成과 運營改善方案 研究,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8.

13) 李敦熙, “高等教育의 大衆化와 質管理”, “大學教育”, 韓國大學教育協議會, 42호, 1989, p. 63.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수전공(double major), 부전공제도(minor)의 강화, 간학문적 전공제도(interdisciplinary approach), 자기개발전공(student-created major) 및 무전공제도(no major)등과 같은 미국에서의 새로운 개혁적 노력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¹⁴⁾

2) 專 攻 科 目

전공과목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이수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140학점 기준에서 요구되는 최저 이수학점은 97학점 이상이며, 전공학문의 세분정도에 따라 선택과목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학과목의 개설과 설정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교수들은 70%(학생은 58%) 정도가 만족을 보인 반면 교수 및 학생들의 이에 대한 불만족도는 각기 29.4%, 42%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불만도가 꽤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표 2〉 학과목의 개설과 설정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구분	만족도	아주불만족	다소 불만	보 통	만 족	계
빈 도		22	80	74	67	252
%		9.1	32.9	30.5	27.5	100
누 계		9.1	42.0	72.4	100	100

학생들이 불만으로 제시한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공과목에서 설강되지 않는 과목, 또는 폐강되는 과목이 있음에 비추어 선택의 여지가 많도록 과목이 다수 설정되어야 한다.

② 전공필수와 전공선택과목 간에 일부 재조정이 요구된다. 전필·전선의 불합리, 교수위주의 설강, 특정분야에 치우친 설강, 교과목의 학년별 배정등이 불합리하며 나아가 교과목의 설정시에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었으면 한다.

③ 고등학교 과정을 반복하는 성격의 강의, 취업이나 진로대비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과목, 또한 원서위주의 강의등은 교과목 개설과 운영에서 재고되었으면 한다.

일반적으로 전공과목의 편성과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학문적 폐쇄성과 세분화, 전공필수교과의 증대 등이 지적된다. 그러므로 학문중심, 교수중심, 필수과목중심의 일반적 구조에서 사회중심, 생활중심, 사회중심영역 필수제 등으로 교과목의 연계, 통합을 시도하고 직업진로(vocational track)와 학문진로(academic track)으로 구분, 능력별, 관심별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해 나갈수 있는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¹⁵⁾

14) 李星鎬, “美國의 大學教育課程”, 李榮德外, “世界主要國의 大學教育課程을 比較研究”,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6, 3, pp. 81~83.

15) 朴東緒外, 1988年度 大學機關評價 綜合報告書,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8, 12, pp. 62~63.

3) 教職科目

사범대학의 경우 교직과목은 모두 필수과목이다. 선택과정으로 이를 이수하는 비사범계 학생들에게도 모두 필수과목으로 되어 대부분 2학점 단위로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후수 과목의 응용적 성격을 지닌 각(교)과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은 3학점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2학점으로 편제되어 있는 교육학의 기초과목 및 일반교육학의 중요도나 비중에 비해 그 균형이 맞지 않는다.

교직과목도 필수과목과 선택으로 이를 구분하여 교직기초의 이론분야에 보다 그 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모두 2학점으로 하여 남은 2학점으로 한 과목을 증설한다거나, 아니면 기초과목 중 선수 몇과목을 일부 3학점 단위로 하여 타전공필수과목들과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교직기초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교사채용 국가고사제에서 교직기초 및 이론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되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하루속히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3학년 1학기까지 대부분 이수토록 개설되어 있는데, 교육(교생)실습이 4학년 1학기에 실시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일부학과에서는 각(교)과 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등이 4학년 2학기에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이 문제이다. 교육실습이전에 선수과목으로 모두 조치되어 3학년 2학기까지 모두 앞당겨 개설하는 것이 과목 선후수면에서 바람직하다.

4) 一般 選擇科目

부전공 및 선택과정으로서 교직과목을 포함한 일반과목을 선택할 경우 모두 21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부전공과정으로 일반선택과정을 이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를 이수하고 싶어도 시간표 편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반응이 72.6%로 사실상 부전공 이수를 위한 시간표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유선택으로 이를 이수하는 경우에도 역시 이수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39.3%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이유를 보면, 이수하고 싶은 선택과목이 시간표상으로 중복되어 있다든지 학과내에서 타학문분야의 과목선택을 되도록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선택과목도 대학 단위로 이를 개설·확대하거나 선택과목군의 학과목 빈도등을 조사, 강의시간대의 배치를 재고하는 등으로 시간표 운영을 보다 개선하여 보다 탄력성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이상으로 교과목의 설정과 개설에 따른 문제들을 살펴 보았는데 이들 제반 문제는 한마디로 전공과목 편중의 교육과정관점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공과목이 지니는 문제로 지적되는 다음 몇가지¹⁶⁾에 유의한다면 이의 개선에 보다 나은 대안들이 탐색될수 있다.

16) 李星鎬, 大學教育課程論, 延世大學校出版部, 1987, pp. 71~77.

그것은 첫째, 전공과 교양을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독립적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 둘째, 양자의 어느 쪽에 보다 강조를 두느냐에 따른 배분비의 갈등, 셋째, 양자를 주로 어느 시기에 이수하게 할 것인가의 이수시기의 갈등, 넷째, 양자의 설장 및 교사 이수에서 교수와 학생의 실제 선호도의 차이의 심화등이 그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 대학의 교과목 개설과 설정은 한마디로 전공중시에서, 그리고 전공교육의 조직은 교양영역에서부터 그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결국 교양과목의 학점을 제한시키는 파행적 결과를 빚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지적되었지만, 본 대학 교과목의 편성은 그 배분비에서 특히 심각한 불균형을 들어내고 있는데 적어도 전공기초과목의 교양(과목) 영역의 침해는 시급해 개선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교양 : 전공 : 자유선택과목의 비중은 대체로 33% : 34% : 33%로 그 1/3을 교양과목이 차지하게 되며 그것은 전공의 기초를 닦기 위한 것이기 보다 전공의 깊이를 위한 그 토양을 넓히는 차원에서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양과정의 성격에 넓이와 깊이, 그리고 수평 대 수직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교양과 전공과목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교과과정의 통합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교과목의 분과중심, 나아가 그 수직과 분화만을 추구하려는 본 대학의 교과과정 편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전공영역에 따라 학문지향성과 전문직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그리고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은 전공영역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 요구된다.¹⁷⁾

2. 教科目的 擔當教授

교수활동은 대학의 핵심기능의 하나로 그만큼 중요한 실재를 이룬다. 이는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체제에서 교수들을 어떻게 조직, 수업에 투입하고 있는냐에 따라, 나아가 이들 수업에서 다학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장됨으로써 그것은 보다 효과적인 활동이 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수행되는 교수의 책무는 대학의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수활동의 질적 효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¹⁸⁾.

교수의 활동은 형태상, 강의, 학생지도, 논문지도, 연구 및 학습자료개발, 행정업무, 대외자문, 봉사 등으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¹⁹⁾ 우선 강의에서 문제가 되되는 것은 각 교과목의 성

17) 教育改革審議會, 高等教育의 改革方向과 戰略, 1986. p. 72.

18) 金蘭洙, 大學改革論, 良書院, 1989. pp. 197~198.

19) 위의 책, pp. 24~207.

격에 비추어 적합한 교수가 이를 담임하고 있는가이다. 여기서는 실제 수업시간이 양적으로 적정한가? 다시 말해서, 전공 교수가 이를 담당하였는가의 여부와 그 담당시수가 어느 정도인가가 이를 평가하는 중요한 준거로 설정되었다.

먼저 교양과목의 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언어, 수학등의 도구교과와 역사, 예·체능등 학문전 영역에 관련되는 다양한 과목들이 이에 포함된다. 교양과목의 담당은 대개 계열별 학문의 기초 내지 하위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당해 학문계열의 전공교수가 맡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교양과목은 전공교수들이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교양과목이 갖는 입문적, 기초적, 일반적 성격 때문에 교과의 심도상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공에서 교양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는 그 기여도를 중요하게 평가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풍토는 대학에서 교수들이 교양과목 담당을 경시하게 하여 중진교수가 아닌 교수들에게 맡겨지는 관행을 낳게 했다.

그리하여 교양과목은 전공 및 중진교수가 담당해야 한다는 요구와 이에 대한 확인의 필요가 증대되어 왔다. 또한 관계 학문의 교수가 번갈아가며 담당하는가, 외부강사가 자주 초빙되어 타고 타학문분야의 자원인사를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배려되고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89학년도의 교양과목 담당교수의 수 및 직급별 분포를 조사해본 결과, 정·부교수의 담당비율은 38%, 전강, 조교수의 담당비율은 19.6%로 중진교수의 담당비율은 약 2배 정도에 달했다. 한편 시간 강사의 담당 비율은 23%로 나타났는데, 조교수의 담당비율까지 일부 고려에 넣는다면 약 절반 정도가 중진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3〉 89학년도 교양과목 담당교수의 직급별 분포

학 기	담 당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전 강	시간강사	계
		1학기	인원수	40	57	57	42
	%	16.5	23.4	23.4	17.3	19.3	100
2학기	인원수	36	53	53	38	63	243
	%	14.8	21.8	21.8	15.6	26.0	100

전공과목의 강의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전임교수의 확보와 수업시수의 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전임교수의 교과목 담당비율은 평균 90% 수준을 상회하나 담당시수는 평균 13.9시간으로 부담이 높은 편이다.

89학년도 담당과목 중에서 비전공과목을 담당하였다고 응답한 교수는 24.5%로 나타났으며 책임(10시간)기준 시수를 초과한 학과는 29/52개 학과여서 55%이상임을 보여준다. 전체 교수중 절반 이상이 책임시수를 초과해 연구나 논문지도 등 상대적으로 다른 직무수행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음이 밝혀졌다. 미완성학과의 교수총원의 미흡, 담당교과교수의 시수감면, 전공과 관련하여 타학과 시수를 담당해야하는 것등이 그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못지 않게 연구, 논문지도 등에 충실을 기하여야 하는 현실적 부담에 비추어 보면, 부족한 교수를 시급히 증원, 수업부담을 경감, 책임시수에 근접시키는 개선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강의의 전문성 제고 또는 최신의 학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외부(자원)강사의 초청은 비교적 활발한 편으로, 본교가 지닌 학술교류의 장으로서의 지역적 매력이나 잇점을 고려할 때, 학점교환제 등의 대학간 협력, 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하계대학의 운영을 정착시킬 수 있는 추진책이 필요하다.

교과목의 담당에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보면, ①전공이 아닌 교수가 과목 담당, ②한 교수의 여러 과목 담당, ③타과 교수의 강의 수강 불편, ④교수의 언어 유창성(화술)부족, ⑤연구내용의 미흡에 따른 제시 내용의 심도 부족과 같은, 교수 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과목의 수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적절한 시간표의 편성이 요구된다. 우선 교과목의 특성, 학습의 능력, 강의실의 이동, 교수각자의 시간 부담등이 고려되어 교수-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지침을 두어야 할 것이다.

5일제 수업, 연속강의 억제, 다인수 학습집단 편성이 불가피한 교양, 교직, 선택과목등의 이론 중심 강의는 80~120명을 넘지 않도록 규제한 우리 대학의 시간표 편성 기준은 이를 고려하여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89학년도 시간표 현황을 실제 조사한 결과, 연속강의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연속강의는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 29.8%나 되었는데, 특강 및 연습과목, 세미나식 강의, 실험시간의 연속, 실험실습 자재 활용의 편의를 고려한 교수의 필요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전체 시간의 30% 정도가 연속강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시간표 편성에 대해 교수들의 의견은 대체로 만족한 경향을 보였다. 81.2%가 만족을 나타낸 반면, 17.2%가 불만을 나타내었는데, ①너무 늦은 시간대(8.9% 교시) 배정, ②전공과목의 오후 시간대 배정, ③재수강 학생을 위한 수강 시간이 조정되어 있지 않는 점이 불만의 이유로 지적되었다.

한편, 학생들은 수강시간표 편성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구성된 시간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만족스럽다고 한 비율은 55.6%를 보인 반면 불만을 나타내는 학생이 40.9%나 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교수들의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불만족스럽다고 반응한 학생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표 4〉 시간표 구성의 만족도

구분 \ 만족도	아주불만족	다소 불만	보 통	만 족	계
빈 도	13	90	67	73	252
%	5.3	37.0	27.6	30.0	100
누 계	5.3	42.4	70.0	98.9	100

그 이유를 보면,

- ① 2~3시간의 속강(27.8%)으로 강의가 부담스럽다.
- ② 부전공, 교직, 일반선택과목등의 제대로 이수할 수 없게 되어 있다(24.6%)
- ③ 강의실 이동에 시간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다(17.9%)
- ④ 점심 식사 시간의 여유가 부족하다(11.5%) 등 외에
- ⑤ 기타 재수강과목의 시간을 맞출 수 없다.
- ⑥ 타학과 과목의 이수가 곤란하다.
- ⑦ 주 3일에 수업시간표가 집중 또는 교수 편의대로 시간표가 짜여져 있다는 것등 여러가지이다.

실험실습시간 등의 연속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일 많은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연속강의인 점, 그리고 부전공, 교직일반선택과목등을 제대로 이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은 앞서 조사된 연속강의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30%나 된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전공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대학의 시간표도 일반 선택과목의 수강이 기본적으로 제약되어 있다는 문제가 크게 잠재되어 있다. 더우기 주 5일제 수업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토요일에도 일부 설강되고 있는 점들은 시간표 편성에 상당한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미구에 주 5일제 수업이 정착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전망할 때, 게다가 여기에 교수의 책임시수 증대, 강의실 부족 등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교수와 학생들에게 각기 만족스러운 시간표를 제공하는 일은 더욱 쉽지 않은 과제일 것 같다. 적어도 40% 이상의 학생들이 시간표 운영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시간표 작성을 위해 그들의 요구조사(need assessment)를 한다든지 하는 보다 세밀한 연구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3. 敎科 授業

말할 필요도 없이 대학에서 교육의 실제상 가장 중시되어야 할 핵심적 요소는 수업의 질이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상의 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수의 수업에 대한 여러가지 필요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교수의 수업에 대한 일련의 평가도 잠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 기준을 보면, 우선 수업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계획이 학생들에게 적절히 제시되고 있는가? 그 다음 수업방식에서 교육자료의 활용, 토론활동 과제의 제시, 시험의 부과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科目別 授業計劃書의 作成

바람직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가 담당 교과의 목적에 따라 일정한 교과 내용을 사전에 계획하여 각기 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수업계획(서)으로 수업계획은 장별, 혹은 단원에 따라 월·주간별로 이르기까지 보다 구체화되어 사전에 제시되어야 학생들이 이를 알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대학에서도 효과적인 수업관리를 위해 소정의 「교수(수업) 계획서」를 학기초에 의무적으로 작성·제출케 하여 수업에 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수개요 및 목표, 교재 및 참고서, 주별 강의주제 및 내용과 범위, 부과하는 과제, 평가방식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수업과에 제출되어 있는 89학년도 2학기의 교수계획서를 자료로 하여 이를 분석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목표와 수업내용이 명세화되어 있지 않은 데다 평가계획, 성적산출방안, 활용될 수업 자료 등도 제대로 진술되어 있지 않은 점이 전반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8절지 한장의 규격화된 지면에다 계획된 모든 내용을 진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를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표 5>에서 나타나듯이, 수업의 지침 및 안내로서의 교수들의 수업계획(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36.5%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표 5> 강의계획서 만족도

구분	만족도	아주불만족	다소 불만	보 통	만 족	계
빈 도		20	72	93	58	252
%		7.9	28.6	36.9	23.0	100
누 계		8.2	37.9	76.1	98.4	100

강의계획서가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 ① 적절한 평가계획이 나타나 있지 않다(28.2%).
- ② 장별로 참고문헌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12.7%).
- ③ 과제 부과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12.4%).
- ④ 과제의 수준과 평가 방법이 남득되지 않는다.
- ⑤ 강의수행을 학생과 협의해서 정해야 된다.
- ⑥ 강의계획서가 제대로 배부되지 않는다는 것들이 중요한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학교에서 서식화한 교수계획서는 지면이 너무 협소하여 장, 절, 별 수업내용이나 그에 따른 필요한 참고문헌을 적절히 안내하기에 어렵게 되어 있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다. 교수계획서는 때로 교수가 그 계획의 창의성을 살리고 항목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문에 기술해야 할 분량이 각기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업의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창의적으로 충분히 제시, 수업지침서로의 교수계획(안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히 포함되어야 할 지침이나 항목만을 제시,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에게나 교수에게 있어 일상의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교수계획서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교수 자신의 보다 성실한 계획, 학사관리면에서도 보다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²⁰⁾

2) 授業指導의 實際

교수의 수업은 강의만이 아닌, 다양한 수업 형태, 적절한 시청각교구, 풍부한 자료등을 활용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촉진된다. 특히 대학생들은 성인학습자로서, 종합력, 비판력 등 고등 정신기능을 적극 활용·개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발표, 토론, 세미나식 수업형태의 조장은 대학의 수업실제에서 교수 방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수들은 강의식 일제학습만이 아닌, 학생들이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학습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학습의 과정에 참여하고 사고·비판할 수 있도록 발표의 기회를 허용하고 참여적인 학습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훌륭한 강의가 어떤 것인가를 학생들이 평가할 때, 강의의 「방식」인가 아니면 「내용」인가의 문제가 있을수 있다. 학생들의 진술은 대개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강의방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내용있는 강의를 하는 교수가 보다 높은 평점을 받는 경향이 있다²¹⁾ 는 점도 그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 全成連, "실라버스의 活用提高 方案",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大學教科授業計劃書 作成의 理論과 實際, 1987. 10, pp. 271~276.

21) 李星珍外, 大學授業評價方案에 관한 研究, 大學授業評價方案研究協議會, 1982, 12, p. 30.

수업형태에 대해 이를 교수들에게 질문해본 결과, 지난 1·2학기 동안 강의실 또는 실험, 실습을 제외하고 발표, 토론, 세미나식 수업을 해본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교수는 62~63%로 나타났고 전혀 없다는 응답도 35.2%나 되었다. 그러한 수업형태를 시도한 시간은 2시간(회)에서부터 전체 수업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응답하고 있는데 그중 빈도를 보면 20시간, 10시간, 6시간의 순이었다. 학생들에게도 이를 질문한 결과, 그런 수업형태를 경험해 보았다는 반응이 23%로 그 밖에도 논문작성, 감상, 상영등 여러가지 학습형태를 가져보았다고 기술하였다.

독일의 경우 강의와 세미나는 대학수업의 중요한 형태로서 특히 세미나는 학생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예비(연습)세미나 본(주요)세미나, 상급세미나 등의 형태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²²⁾

〈표 6〉 강의, 실험, 실습 외의 수업형태 경험 여부

구분	경험	없 음		있 음		계
		없	음	있	음	
빈	도	179		58		252
	%	75.2		24.4		100
누	계	75.2		99.6		100

한편, 자연계 학과에서의 실험실습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교수가 48.8%인 반면, 22.1%의 교수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수업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학생들의 의견도 실험실습운영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13.9%인데 비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로 나타나 실험실습 학습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들어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험실 부족, 설비, 기자재의 부족 외에, 다음의 강의시간 때문에 한번 설치된 실험장치를 지속시키기 어렵다든가, 시범만으로 끝나버리는 실험, 수강생과다, 재료비 부족, 실험실습 시간 부족 등이 주요한 애로로 제시되었다. 교과과정의 개선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실험실의 증설, 기자재와 실험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구였었다.

한편, 현장실습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이에 대한 평가는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응답 하였지만, 그 실체는 실습지도기관들이 직무조력의 면에서만 학생들은 활용하는 형태이어서 이러한 형태의 현장실습형태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도기관의 프로그램이 보다 계획적, 체계적이기를 바라고 있고 시기, 경비부담등의 면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22) 玄京錫, “獨逸의 大學教育課程”, 李榮德外, 世界主要國의 大學教育課程 比較研究,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6, 3. pp. 88~117.

활용하는 학습자료를 보면, 교수들은 약 50%가 3권 내외의 최신의 부교재를 권장, 보다 학습내용의 심화를 기하고 있는 한편, 42.6%는 교육공학적 기자재를 사용하여 수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문분야,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다양한 기자재와 자료를 사용하여 수업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수계획서 상에 의하면 모든 교수들은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제를 부과, 수업을 운영하게 되어 있다. 과제량에 대한 적절성을 알아본 결과, 교수들은 57.4%가, 학생들은 67.4%가 적절하다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특별히 12.3%의 교수들이 이는 적은 편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23.8%가 적다는 반응을 보여 주목되었다. 한 학기 여러 과목의 이수교재의 과제량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은 의외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과제의 부과회수가 보다 증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강좌에서 요구되고 있는 리포트수는 4편 이하인 경우가 한국의 경우 약 72%이고 외국의 경우는 약 66%로, 5~6편인 경우는 외국은 21.5%, 한국은 7.0%로 나타났다.²³⁾ 과제의 처리는 평점 또는 논평을 기재하여 돌려주고 있는 교수들이 40%이고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교수도 52.5%나 되었다.

과제의 부과와 처리는 학생들의 학습준비 뿐만 아니라 학습내용에 대한 확인 또는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별학습의 성격을 지니면서 특히 인지발달 면에서 고등정신기능으로 중요시되는 사고력, 종합력, 비판력 등을 기를 수 있는 유익한 지도방법이 된다. 나아가 과제물에 대한 직정한 평가와 환류는 학생 개인에 대한 자극, 지도와 평가의 의미도 갖는 만큼, 교수는 가능한 한 평가의 과정에서 과제결과를 보고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토론하게 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학습으로 이끌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제물을 통한 수업내지 개별지도는 학생의 상담 및 이해의 기회도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과제지도방법이나 그 지도의 책무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授業 結果 및 學生成績의 評價

1) 授業 結果의 評價

한 시간 또는 학기 단위의 수업, 또는 일련의 수업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에 따른 성과 및 학생성취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는 교수 목표의 도달도를 알아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투입과정에서의 교수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진단평가나 수업의 진행도상에서 그 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충적 정보등을 송환해 주는 형성평가는 최종단계에 이르러 총체적인 학생행동의 변화와 목표에의 도달도를 확인하는 평가에 못지 않게 매우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갖는 수업활동의 일부이다. 따라서 수업 또는 학생의 평가를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투입, 진행,

23)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大學生 學習量 增大方案 研究, 1988, 10, p. 72.

최종단계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평가 기능이 적절히 투입될 필요가 있고 그 방법 및 결과 또한 타당하고 신뢰로울 것이 요구된다.

본교의 평가관리체제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이다. 다만 중간고사는 최종단계의 총괄평가에서 그외의 과제물, 출석 상황 및 기타와 합산해 종합적으로 평점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학칙 27-8조), 문제는 가능한 대로 진단·형성·종합평가의 세가지 형태의 평가가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각기 투입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중간, 기말고사 외에 다른 평가활동을 임의 또는 수시로 실시한 적이 있느냐를 조사해 본 결과, 「있다」는 교수(33.65)보다 「없다」는 교수의 비율(63.9%)이 더 많았다.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평가 이외의 다른 평가나 그 기능이 적절히 투입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중간, 기말고사외의 교수들의 평가형태는 매우 다양하였다. 먼저 인문·사회계 학과에서는 토론수업에서의 토의 능력, 참여도, 기여도 등을 수시 평가하고 있고 그외 암기고사, 수강태도평가, 사회조사, 그룹활동평가, 수시 숙제 평가, 월말고사, 작품·실기합동(상호)평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자연계 학과에서는 퀴즈 테스트, 전시간 학습결과의 도달도 확인을 위한 5분 평가, 수시고사 외에 학습태도 평가, 학생상대평가, 표본제작 결과 평가 등의 유형을 찾아 볼 수 있어 그 횟수도 각기 달랐다.

이와 관련, 중간·기말고사를 제외한 시험 또는 어떤 유형의 평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를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있다」는 학생은 39.3%였고 「없다」는 학생은 55.2%로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임의의 수시평가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들의 학생성적에 대한 평가방법에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았다. 학업성적의 평가방법은 크게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그 문항형식이 나뉘지는데, 우리대학에서의 교수들의 평가방법은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총괄평가시에는 주로 서답형이, 여기에서 다시 논문형과 단답형이 주류를 차지하였다. 선택형에서는 다선지형 또는 제한 완성형 문항들이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다. 주관(식) 논문형 외에 그 밖의 다른 출제방식을 활용한 교수는 45.9%로, 형식면에서는 선다형, 진위형, 연결형 등이 주된 방식을 차지했다.

학생들의 반응도 서답형이 「제일 많다」(45%)는 데서 이를 뒷받침하며 그외 구술능력, 작문, 자료조사의 발표, 보고서 테스트, 구두질문(연구실에서 1대1의 면접), 기기조작시험, 연습문제풀이 시험, 영문문장해석, 토플식 테스트 등 여러가지 형태로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2) 學生成就度の 評價

전체적으로 보아 교육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 전반의 과목별 학업 성취수준이다. 87년도에 졸업정원제가 폐지되면서 상대평가는 그 자리를 잃고 사실상 절대평가제로 환원되었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A'에서 F'학점에 이르기까지 모두 10단계로 각기 성취도를 평가하게 되어, 수업 목표의 달성도를 의식한 준거지향, 목표지향, 절대지향 평가가 주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편의상 52개 학과의 89학년도 2학기 성적 분포단을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7〉 학생 학업성취도의 분포

구분 \ 학점		89~2학기 (%)				
		A	B	C	D	F
비	율	36.5	34.3	14.8	8.7	5.6
누	계	36.5	70.8	85.6	94.3	100

B학점 이상을 목표에 도달한 수준으로 설정할 때, 위의 표는 70% 이상이 상위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지만, 그러나 이를 만족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학업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타대학등과의 보다 세밀한 본교 분석이 뒷받침되어야만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견해 학사 경고 대상자가 14.3%나 된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잠재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게 한다.

한편, 교수들의 평가에 대해 학생들도 각기 다른 이견(異見)을 제시하고 있음은 여러가지 면에서 주목된다.

- 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38.1%).
- ② 평가 방법의 공개 내지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으면 한다(17.4%).
- ③ 과제점수가 보다 많이 반영되었으면 한다(17.1%).
- ④ 답안지만에 의한 평가보다 평소 열심히 하는 학습과정에서의 태도등을 성적평가에 반영해주었으면 한다(9.7%).
- ⑤ 그 밖에 암기, 이해력의 측정보다 논리, 사고력등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해 주었으면 한다.
- ⑥ 교수간 평점차가 시정되어야 한다.
- ⑦ 출제문제를 사전에 예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⑧ 실험, 실습점수가 반영되었으면 한다.

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교수들이 평가방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제시된 견해들을 통틀어 볼 때, 우선 평가의 공정성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평가의 객관성 외에도 교수간의 평점에 대한 차이가 많다는 지적도 주목된다. 또한 단순한 암기의 재생 또는 이해력이 측정에 머물지 말고 보다 고차적인 정신능력등을 테스트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들도 매우 의미있는 문제 제기라 할 수 있다.

평점의 공정성 내지 교수간 평점 균형의 유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의 목표나 기법등에 대한 교수들의 연수와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학교의 평가관리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본다.

3) 卒業試驗 卒業論文 制度의 評價

졸업시험, 논문제도 및 실기 발표회는 대학의 산출인 학사자격의 질관리 장치로 중요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8〉 졸업논문제도, 졸업시험제도, 실기(연주)발표회에 대한 견해

의견 \ 구분	효과적	개 선	폐 지	계
빈 도	107	76	30	252
%	50.2	35.7	14.1	100
누 계	50.2	85.9	100	100

〈표 8〉에 의하면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5.7%, 그리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4.1%로, 개선 내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50%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고려한다면 그 개선의 필요가 전자에 못지 않은 것으로 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개선방향으로 학생들이 제시한 구체적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졸업논문

- ①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② 보다 깊이있는 주제를 선정하게 해서 작성토록 해야 한다.
- ③ 참고자료를 요약 또는 짜집기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창의적 주관을 중점 평가해야 한다.
- ④ 관련 자료가 부족하므로 도서관에 이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⑤ 발표시간이 보다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 ⑥ 논문심사가 보다 엄격해야 한다.

(2) 졸업시험

- ① 학년말의 취업준비시기와 겹치므로 1학기 또는 2학기 초로 실시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
- ②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③ 과목수를 한정, 시험부담을 줄여주고 외국어, 토플시험등 취직 시험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 ④ 감독을 강화하고 일정점수 이상만을 인정, 졸업시켜야 한다.
- ⑤ 자연계학과는 시험제대신 졸업논문제로 전환되어야 바람직하다.

(3) 실기 발표회

- ① 발표작품수가 보다 많아야 한다.
- ② 교수 취향에 맞추는 작품발표보다 창의적인 것을 보다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상의 졸업논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시험, 그리고 발표등의 제도에서의 여러가지 문제는 학칙상 이수학점이 부과되지 않아 이를 학생들이 소홀히하는 데서 파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문지도(심사) 대상자수가 너무 많은 것도 교수들의 지도를 어렵게 하는 현실적 이유로 지적되었지만, 한편 취업, 졸업준비 등 막바지 과업의 긴박감도 아울러 학생들의 노력을 부실하게 하는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인 대안으로는 대학원의 경우처럼 적어도 학점을 부과하고 교수의 지도시간을 인정, 강화해 나가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의 시행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보다 깊이 있게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結 論

우리 대학은 이제 그 발전의 과정에서 외부지향의, 그리고 양적 팽창 못지 않게 내적 지향의 질적 개선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계에 처해 있다. 대학 기능에서 그 핵심이요 우선은 교수(수업)이다. 그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진보적이며 다양화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세계속의 대학으로 부상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잠재력에 터한 교육과정의 개별화, 특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구하는 데서 우리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과정의 평가에 대한 작업이 평소 계속해서 투입되지 않아서는 안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학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개선의 노력을 주기적으로 투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토대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의 발견과 확인이다. 교육과정은 우선 그것이 학문 또는 그 내용의 차원에서 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적 필요를 축으로 하여 기대되어야 할 행동변화의 면에서 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대학에서의 수업은 그 대상이 성인학습자요 그들은 또한 학습의 주체라

는 면에서 공동의 수업계획, 주체적 학습과정 및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학의 교육과정 평가는 국가, 사회적 규제나 타율적인 계기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 대학의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노력은 산발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였음을 새삼 반성할 필요가 있다. 실험대학사업에서 보여졌듯이, 그것도 문교당국의 권고나 평가 계획의 일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 필요를 받아들여 실시해 왔음을 상기한다면 타율적인 계기가 지금까지 평가개선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음이 새삼 재고되어야 한다.

평가 개선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타당한 평가의 준거 설정에 대한 합의이다. 특히 학생들의 필요와 연구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비록 수동적이기는 해도 대학교육협의회 의 90학년도 대학평가사업계획에 의거한 본 대학의 평가는 교육과정의 평가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학사운영에 대한 것이어서 평가의 준거 면에서나 학생들의 요구를 토대로 하여 자체 평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평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영역에 대한 평가가 그 기초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특히 학생집단에 대한 질문조사에서 그들의 자유반응 문항에 나타난 기술들만을 중심으로 하여 그 요구를 분석해본 것이다. 어떤 경우, 그것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한정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우 직설적이고 솔직한 의견의 제시였고 또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들의 진술은 매우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앞으로 계속 심층적이며 집약된 의견을 표집하는 데까지 조사가 발전되어야 할 과제를 남겼다. 학생들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적절한 요구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요한 시사를 주었으며 아울러 발견된 문제와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다 깊이 있게 연구, 이를 교육과정의 운영에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임도 시사해 주었다.